

일 종합병원 신규간호사의 실무적응 경험 유형

김윤정
배재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Type of Clinical Experience of Adaptation of New Nursing Staffs in a General Hospital

Yun-Jeong Kim

Dept. of Nursing, Pai Cha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 신규간호사의 실무적응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을 파악하고자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종합병원 신규간호사 4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진술문은 자신의 의견에 따라 +4점(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에서부터 0(중립) -4(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하여 9점 척도상에 강제 분포하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은 PC QUANL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분석결과 eigenvalue 1.0이상을 가진 값을 가지고 5가지 유형이 나타났으며 변량은 62.38%이었다. : (1) 새로운 업무 부담형, (2) 흥미, 책임감형, (3) 상황 개선형, (4) 지식, 기술 부족형, 그리고 (5) 과도한 업무 부담형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 차이점으로 보았을 때 종합병원 신규간호사의 실무적응유형을 볼 수 있었으며, 이 연구 결과 효과적인 교육과 개별화된 임상실무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실무 경험, 적응, 신규간호사, Q 방법론, 주관성 연구

Abstract This study designed to know subjective structure about clinical experience of adaptation of new nursing staffs in a general hospital and using Q-methodology. Using Q-methodology, 40 new nursing staffs sorted working a general hospital through personal interview. The statement positions on the sorting continuum were scored from +4(representing the highest level of agreement) through 0(at the neutral position on the continuum) through to -4(representing the highest level of disagreement). Factor analysis of the data was undertaken using PC QUANL program to determine if any patterns were discernible. The five types extracted all had eigenvalues greater than 1.0 and explained 62.38% of the variation in responses.: (1) New workload type, (2) Interest and responsibility type, (3) Improve the situation type, (4) Lack of knowledge and technology type, and (5) Excessive workload typ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found in the subjective structure of clinical experience of adaptation of new nursing staffs in ad general hospital.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programmes of education and personnel clinical practice strategies.

Key Words : Clinical experience, Adaption, New nursing staff, Q Methodology, Subjectivity study

* 본 논문은 2012년 배재대학교 신진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eceived 24 February 2014, Revised 19 March 2014

Accepted 20 April 2014

Corresponding Author: Yun-Jeong Kim(Pai Chai University)

Email: yunkim@pc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현대 사회는 변화된 인구구조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질병 양상이 다양해졌으며,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의 요구사항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건강관리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높은 수준의 간호교육과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급변하는 건강관리환경은 전문적인 간호 관련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신규간호사에게는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고 인간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지식, 기술 및 경험의 부족과 역할갈등, 직업적인 책임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므로 신규간호사에게는 간호서비스의 대상인 인간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전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정확한 지식, 기술 및 태도가 필요하다[1].

신규간호사는 Benner(1984)의 기술습득 모형에 따르면 초보자와 상급초보자 단계에 속한다. 이들은 상황에 대한 사전 경험의 부족으로 전체적인 맥락 파악이 어려워 간호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다른 임상 양상들간의 중요성을 구별하는 임상적 판단 등을 하게 될 경우 도움을 필요로 한다[2]. 아울러, 졸업 후 첫 1년의 기간 동안 자율성, 독립적인 의사결정,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는 반면, 간호에 대하여 품고 있던 기대와 가치에 대해 혼란과 갈등을 겪기 쉬워 이러한 기대 충족과 적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과 빠른 이직을 초래할 수 있다[3].

또한 많은 신규간호사들이 간호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중환자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의 부족, 동료 및 선임간호사들을 포함하여 여러 전문 인력들과의 갈등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4],[5], 육체적 노동, 순환근무 등으로 인한 피로와 부담감, 업무의 미숙함으로 인한 '태움'으로 힘겨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신규간호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규간호사의 기본간호술 수행 등에 대한 조사연구, 임상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임상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신규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적응 경험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실무적응유형을 이해하기 위해 Q방법론을 적용하여 신규간호사들의

실무적응유형을 파악하여 신규간호사들의 긍정적인 직업관과 조직관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전략에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신규간호사의 실무적응 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에 의해 창안된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적 영역인 태도, 신념, 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으로, 대상자 개개인이 지닌 주관성 구조에 의해 서로 다른 유형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 신규간호사의 실무적응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Q방법론 시도하였다.

2.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2.2.1 Q표본(Q sample)

본 연구는 Q모집단(Q-population)은 신규간호사의 실무적응에 대한 느낌, 의견, 생각, 가치관, 태도등이 포함되어 있어 설문 문항에 대상자가 어떤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아 참조적(self-referent)인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서적, 학술지, 신규간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67개의 Q모집단을 추출하였다. 이 중에서 대표성이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진술문을 선택하여 최종 42개의 진술문을 Q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에서 선정된 각 42개의 진술문은 전체적으로 모든 의견을 포함하고, 긍정, 중립, 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2.2 P표본

Q방법론은 개인간의 차이(inter-individual differences)가 아니라 개인 내의 중요성의 차이(intra-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를 다루는 것이므로 P표본의 수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6].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해 있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한지 12개월 이내의 신규간호사 40명을 P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3월 11일부터 29일까지이었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연구 참

여가 자발적이며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동의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설문지와 동의서는 분리 하여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2.2.3 Q 분류과정과 분석방법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먼저 인구나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대상자가 Q진술문들을 자신의 의견에 따라 가장 긍정(동의)하는 진술문에서부터 가장 부정(동의하지 않음)하는 진술문을 선택하여 9점 척도 상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때 의견이 정상분포에 가깝도록 하기 위해 Q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강제 분포하도록 하였다. 이 때 양극에 놓인 진술문(+4, -4) 4개를 채택한 이유를 각각 쓰도록 하였다.

Q분류작업은 QUAN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Q요인 분석은 주인자 분석(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방법을 이용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결정을 위해 Eigenvalue 1.0이상을 기준으로 요인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하였으며, 표준점수인 Z-score를 사용하여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분석

3.1 유형의 구성

본 연구에서 신규간호사의 실무적응 유형에 대한 주관적 의미를 Q요인 분석을 한 결과는 5개의 주관성 유형으로 나뉘어졌다.

총 40명의 대상자 중 제1유형은 15명(37.5%), 제2유형은 2명(5%), 제3유형은 5명(12.5%), 제4유형은 9명(22.5%), 제5유형은 9명(22.5%)으로 나타났다[표 1]. 제1유형의 경우 '새로운 업무 부담형'으로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업무에 임하게 될 때 힘들어하며, 간호행위 시 간호기술의 부족을 느끼며 검사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유형은 '흥미, 책임감형'으로 새로운 치료와 간호방법에 흥미를 갖고, 간호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유형 '상황 개선형'으로 간호 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건설적

인 비판을 수긍하며 개선하고 환자에게 시행된 간호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유형은 '지식, 기술 부족형'으로 간호행위 시 지식, 간호기술의 부족을 느끼고 있으며, 제5유형은 '과도한 업무 부담형'으로 교대근무로 항상 피로감을 느끼며 무리한 근무스케줄이 지치게 만들어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유형별 인자가중치와 변량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제 1유형의 변량도는 37.83%, 제 2유형의 변량도는 8.92%, 제 3유형은 6.29%, 제 4유형은 5.22%, 제 5유형은 4.13%로 전체 변량도는 62.38% 이었다[표 2].

각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제1유형과 제2유형의 상관계수는 .365, 제1유형과 제3유형은 .465, 제1유형과 제4유형은 .483, 제1유형과 제5유형은 .687이었으며, 제2유형과 제3유형은 .263, 제2유형과 제4유형은 .293, 제2유형과 제5유형은 .391이며, 제3유형과 제4유형은 .552, 제3유형과 제5유형은 .604, 제4유형과 제5유형은 .573으로 각각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3.2 유형 분석

일반적으로 인자가중치가 1.00 이상인 사람이 각 유형의 대표성을 가지며 그 유형의 특성을 설명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도 인자가중치가 1.00 이상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Q분류 과정 시 양 극단(가장 긍정 및 강한 부정)을 선택한 이유와 특정문항을 타 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표준점수의 차가 큰 것을 참고하여 종합병원 신규간호사의 적응 유형에 관한 주관적 구조를 밝히고 각 유형의 특성을 해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유형의 특성을 명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2.1 제1유형 : 새로운 업무 부담형

제1유형은 총 15명(37.5%)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 순으로 살펴보면 '나는 간호행위 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스럽다.', '나는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업무에 임하게 될 때 힘들다.',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간호문제는 수간호사나 선임간호사의 조언을 얻어 해결한다.', '나는 나의 무리한 근무스케줄을 나를 지치게 만든다.', '나는 간호행위 시 지식의 부족을 느낀다.', '일을 한 후에는 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actor Weight of P-sample

Type	ID	Factor weight	Age	Gender	Religion	Education	Career (Month)	Department	Reason for application
1	23	2.3579	29	Female	None	Bachelor	4	Ward	Job
	15	1.8440	23	Female	None	Diploma	4	Ward	Aptitude, Interest
	32	1.8190	24	Female	Buddhism	Bachelor	7	Ward	Job
	9	1.7508	24	Female	None	Bachelor	4	ICU	Recommendation
	11	1.5799	23	Female	None	Bachelor	10	Ward	Recommendation
	18	1.4434	25	Female	None	Bachelor	6	Ward	Aptitude, Interest
	28	1.3083	25	Female	None	Bachelor	7	Ward	Job
	36	1.2002	22	Female	Catholic	Bachelor	3	ICU	Recommendation
	25	1.0999	23	Female	Protestant	Bachelor	7	Ward	Aptitude, Interest
	21	1.0962	24	Female	None	Bachelor	9	Ward	Recommendation
	16	1.0481	23	Female	None	Bachelor	12	Ward	Recommendation
	12	.9911	23	Female	None	Bachelor	4	Ward	Service
	22	.7181	23	Female	Protestant	Bachelor	6	Ward	Aptitude, Interest
	8	.6912	24	Female	None	Bachelor	4	ICU	Job
1	.5259	23	Female	None	Bachelor	12	Ward	Recommendation	
2	29	1.7418	24	Female	Catholic	Bachelor	10	Special ward	Aptitude, Interest
	31	1.6602	24	Female	None	Bachelor	12	Ward	Job
3	13	1.4541	23	Female	None	Bachelor	10	Ward	Recommendation
	33	1.3719	25	Female	Catholic	Bachelor	12	Ward	Job
	7	.7752	23	Female	None	Diploma	10	Ward	Job
	14	.7428	24	Female	None	Bachelor	6	Ward	Recommendation
	39	.5030	24	Female	Catholic	Bachelor	6	Ward	Service
4	10	1.5220	22	Female	Catholic	Bachelor	12	ICU	Service
	26	1.3660	26	Female	None	Bachelor	10	Ward	Aptitude, Interest
	2	1.2131	23	Female	None	Bachelor	4	ICU	Aptitude, Interest
	24	1.1831	29	Female	Protestant	Bachelor	4	Ward	Job
	34	1.1196	24	Female	None	Bachelor	12	Ward	Recommendation
	3	.9991	22	Female	Buddhism	Diploma	9	Ward	Job
	6	.8881	23	Female	None	Bachelor	3	Ward	Recommendation
	20	.8308	23	Female	None	Bachelor	7	Ward	Job
	38	.6101	25	Female	None	Bachelor	4	Ward	Recommendation
5	19	1.2838	23	Female	Protestant	Bachelor	7	Ward	Service
	4	1.1968	26	Female	Catholic	Bachelor	10	Ward	Recommendation
	37	.8736	23	Female	None	Bachelor	4	Ward	Aptitude, Interest
	27	.8597	30	Female	None	Bachelor	4	Ward	Job
	35	.7232	24	Female	Catholic	Bachelor	12	ICU	Job
	40	.6241	24	Female	None	Bachelor	12	Ward	Service
	5	.6096	22	Female	Protestant	Diploma	12	ICU	Job
	30	.5874	22	Female	None	Diploma	9	Ward	Recommendation
	17	.5841	23	Female	None	Bachelor	4	Ward	Recommendation

는 감정까지도 메마르게 될 때가 있다.’, ‘나는 보다 나은 보장과 신분이 보장된다면 언제든지 이직할 의사가 있다.’, ‘나는 간호행위 시 간호기술의 부족을 느낀다.’, ‘나는 1일 3부 교대근무로 항상 피로감을 느낀다.’, ‘나는 간호행위 시 치료나 검사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나는 나의 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 등으로 생각한 반면 가장 부정적인 진술문의 순으로 보면 ‘나는 일을

한 후에도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이 남아 있음을 느낀다.’, ‘나에게 할당된 작업량은 충분히 견딜만한 양이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실습을 바탕으로 치료와 간호의 우선순위를 알고 일을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다.’, ‘나는 간호 관련 전문지를 정규적으로 읽는다.’, ‘나는 환자, 보호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가 있다.’, ‘나는 행정적 사무 처리를 위한 문서기록에 소비

〈Table 2〉 Eigen value and variances, Cumulative Variance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5
Eigen value	15.1313	3.5662	2.5165	2.0881	1.6508
Variance	.3783	.0892	.0629	.0522	.413
Cumulative Variance	.3783	.4674	.5303	.5826	.6238

하는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현재 소속해 있는 병원에서 배운 지식과 실습을 바탕으로 치료와 간호의 우선순위를 알고 일을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제 1유형의 인자가중치가 높은 구성원을 중심으로 면담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1을 대표하는 23번 대상자(인자가중치(2.3579)는 29세 여자로 종교는 없고, 학사졸업에 병동계에 4개월 근무하였으며, “간호행위 시 순서를 빼먹는다거나 필요물품을 빠뜨릴 때가 있으며, 머리보다 손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간호기술의 부족함을 느끼며, 환자가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지 못해서 지식의 부족함을 느낀다.”, 그리로 “아직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았고 응급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적용해야 할지 몰라서 당혹감이 먼저 생긴다.”며 새로운 간호행위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냈다. 무어고 했다. 15번 대상자(인자가중치 1.8440)는 23세 여자로 종교는 무교이며, 전문학사졸업으로 현재 병동계에서 4개월 근무하였다. 이 대상자는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앞서고 선배에게 물어보면 잘 가르쳐주는 분도 있지만 몇 개월째인데 모르나며 화내시는 분도 있어서 조금 망설여진다. 또한 모르는 것이 항상 많다고 느끼며 응급상황이 오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당황해할 것 같다.” 그리고 “간호기록을 남겨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 유형의 특성은 새로운 간호업무가 발생하면 지식과 기술부족으로 간호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1유형의 대상자는 종합병원 경력기간이 6.6개월로 5개 유형 중에서 경력이 가장 낮았으며, 간호학과 입학동기가 가족과 친지권유가 40%로 나타났으며,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많은 37.5%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 1유형은 간호 행위 시 잘 알지 못하는 새

〈Table 3〉 Correlation between Types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5
Type 1	1.000				
Type 2	.365	1.000			
Type 3	.465	.263	1.000		
Type 4	.483	.293	.552	1.000	
Type 5	.687	.391	.604	.573	1.000

로운 업무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게 힘들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제 1유형을 “새로운 업무 부담형”으로 명명하였다.

3.2.2 제2유형 : 흥미, 책임감형

제2유형은 총 2명(5%)으로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 순으로 살펴보면 ‘나는 새로운 치료와 간호방법에 흥미를 갖는다.’,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간호문제는 수간호사나 선임간호사의 조언을 얻어 해결한다.’, ‘나는 나의 무리한 근무 스케줄은 나를 지치게 만든다.’, ‘나는 간호사가 해 줄 수 있는 의료의 한계에 대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낀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간호사의 역할이 현실과 달라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에 갈등을 느낀다.’, ‘나는 나의 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가중 일한다.’, ‘나는 간호업무 외의 일에 책임을 져야 할 때 힘들다.’ 등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부정적인 동의를 보인 진술문을 살펴보면 ‘나는 행정적 사무 처리를 위한 문서기록에 소비하는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병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이 체계화되어 있다.’, ‘모든 업무상의 결정은 직속상관이 하며 내가 결정하는 업무는 거의 없다.’, ‘나는 일을 한 후에도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이 남아 있음을 느낀다.’, ‘나는 환자에게 시행된 간호활동을 평가한다.’, ‘나는 의사 처방의 기본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등으로 나타났다[표 5].

제 2유형을 대표하는 29번 대상자(인자가중치 1.7418)은 24세 여자, 학사졸업이며 종교는 천주교이고 특수부서계에 10개월 근무하였다.

대상자의 진술문에 의하면 “새로운 case의 환자와 간호 처치법을 처음 맞을 때는 조금 두렵지만, 문제를 이룬과 접목하여 해결하면 신기하고 재미있다.”, 그리고 “선배들에게 물어볼 때, 긍정적 feedback이 많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유형을 대표하는 31번 대상자(인자가중치 1.6602)는

〈Table 4〉 Representative items of Type 1

No.	Statement	Z-score
10	I am embarrassed in an emergency during performing the nursing and do not know what to do.	1.90
39	It is hard for me to perform a new work I do not know very well.	1.57
19	I gain advice from my chief nurse or senior nurse for any problem I cannot solve alone.	1.53
23	My excessive work schedule makes me tired.	1.43
6	I feel my knowledge is less than sufficient during performing the nursing.	1.35
32	Sometimes I feel I exhausted even my emotion after work.	1.28
24	I have an intention to change jobs anytime for better pay, treatment and position.	1.22
7	I feel my nursing skill is less than sufficient during performing the nursing.	1.17
22	I always feel tired for the 3 shift system a day.	1.06
8	I sometimes do not know treatment or examination methods during performing the nursing.	1.04
16	I work with the sense of responsibility for my behaviors.	1.03
2	I can skillfully conduct the process with the understanding of treatment and nursing priority based on the knowledge and practices taught by the hospital I am currently working at.	-1.03
40	I think my hours spent on documentary record for administrative transactions are moderate.	-1.07
33	I sometimes see my relationship with the patient and his/her family in bad shape.	-1.34
12	I regularly read nursing related technical journals.	-1.47
1	I can skillfully conduct the process with the understanding of treatment and nursing priority based on the knowledge and practices taught by the school.	-1.48
21	I can sufficiently manage the workload assigned to me.	-1.55
31	I feel I have enough strength to enjoy my leisure time after work.	-2.11

24세 여자로 학사졸업이며 종교는 무교고 병동계에 12개월 근무하였다.

대상자의 진술문에 의하면 “새롭고 다채로운 치료방법과 간호방법은 늘 똑같은 것보다는 상큼하고 신선해서 하고자하는 욕구가 더 생기는 편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 2유형의 대상자는 종합병원 경력기간이 11개월로 5개 유형 중에서 경력이 가장 많았다. 또한 간호학과 입학동기가 적성과 흥미, 그리고 취업보장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전체 대상자 중 가장 적은 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유형은 간호사가 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치료와 간호방법에 흥미를 갖고 있으며, 본인의 간호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2유형을 “흥미, 책임감형”으로 명명하였다.

3.2.3 제3유형 : 상황 개선형

제3유형은 총 5명(12.5%)으로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 순으로 살펴보면 ‘나는 1일 3부 교대근무로 항상 피로감을 느낀다.’,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간호문제는 수간호사나 선임간호사의 조언을 얻어 해결한다.’, ‘나는

〈Table 5〉 Representative items of Type 2

No.	Statement	Z-score
5	I become interested in new treatment and nursing methods.	1.99
19	I gain advice from my chief nurse or senior nurse for any problem I cannot solve alone.	1.74
23	My excessive work schedule makes me tired.	1.73
34	I feel burdened mentally for the limitations of the medical care a nurse can provide.	1.50
35	I think nursing staff is not treated properly in the hospital.	1.49
42	I think the role of a nurse is too different from what I have thought about before to be a full profession.	1.49
16	I work with the sense of responsibility for my behaviors.	1.48
38	It is hard for m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ings other than the nursing work.	1.25
4	I can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 of doctors' prescription.	-1.02
20	I evaluate the nursing care performed on a patient.	-1.26
31	I feel I have enough strength to enjoy my leisure time after work.	-1.49
30	Every work decision is made by my direct boss and I rarely make decisions.	-1.49
29	The hospit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s well systemized for efficient work performance.	-1.73
40	I think my hours spent on documentary record for administrative transactions are moderate.	-1.74

〈Table 6〉 Representative items of Type 3

No.	Statement	Z-score
22	I always feel tired for the 3 shift system a day.	2.03
19	I gain advice from my chief nurse or senior nurse for any problem I cannot solve alone.	1.79
16	I work with the sense of responsibility for my behaviors.	1.59
18	I accept constructive criticisms and try to improve myself.	1.39
3	I try to be interested in and understand my patients' personal aspects and help them.	1.28
24	I have an intention to change jobs anytime for better pay, treatment and position.	1.12
20	I evaluate the nursing care performed on a patient.	1.05
26	I proudly talk to others about my work.	1.03
9	I have difficulties in operating medical devices.	-1.03
14	I have insufficient opportunities to learn more knowledge or nursing skills.	-1.03
13	I have no time to learn more knowledge or nursing skills.	-1.15
41	I think my role is too ambiguous to be a full profession.	-1.16
42	I think the role of a nurse is too different from what I have thought about before to be a full profession.	-1.25
31	I feel I have enough strength to enjoy my leisure time after work.	-1.85
12	I regularly read nursing related technical journals.	-1.90
21	I can sufficiently manage the workload assigned to me.	-1.92

나의 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 ‘나는 건설적인 비판을 수긍하며 개선하고자 한다.’, ‘나는 환자의 개인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한다.’, ‘나는 보다 나은 보장과 신분이 보장된다면 언제든지 이직할 의사가 있다.’, ‘나는 환자에게 시행된 간호활동을 평가한다.’, ‘나는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등으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으로 답한 진술문은 ‘나에게 할당된 작업량은 충분히 견딜만한 양이다.’, ‘나는 간호관련 전문지를 정기적으로 읽는다.’, ‘나는 일을 한 후에도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이 남아 있음을 느낀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간호사의 역할이 현실과 달라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에 갈등을 느낀다.’, ‘나는 나의 역할이 애매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에 갈등을 느낀다.’, ‘나는 근무하면서 부족한 지식이나 간호기술을 배울 시간이 없다.’, ‘나는 근무하면서 부족한 지식이나 간호기술을 배울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6].

제3유형을 대표하는 13번 대상자(인자가중치 1.4541)는 23세 여자로 종교는 무교이며, 병동계에 10개월 근무하였으며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가족과 친지의 권유 때문에 선택하였다.

대상자의 진술문에 의하면 “나는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간호하려고 노력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한다.”고 진술하였다.

33번 대상자(인자가중치 1.3719)는 26세 여자로 종교

는 천주교, 병동계 6개월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취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대상자의 진술문에 의하면 “나는 간호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한다. 왜냐하면 간호직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므로 책임감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응급상황을 겪어 일어날 때 당황스럽고 겁이 나지만,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즉 나의 책임감이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3유형의 대상자는 종합병원 경력기간이 8.8개월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학과 입학동기가 가족과 친지의 권유, 그리고 취업보장으로 선택하게 되었다(80%). 이 유형은 본인의 간호 행위 시 응급상황이 오면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를 간호하고자 노력했으며, 환자의 안전과 책임감이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3유형을 “상황개선형”으로 명명하였다.

3.2.4 제4유형 : 지식, 기술 부족형

제4유형은 총 9명(22.5%)으로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 순으로 살펴보면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간호문제는 수간호사나 선임간호사의 조언을 얻어 해결한다.’, ‘나는 간호행위 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스럽다.’, ‘나는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나는 간호행위 시 지식의 부족을 느낀다.’, ‘나는 간호행위 시 치료나 검사방

〈Table 7〉 Representative items of Type 4

No.	Statement	Z-score
19	I gain advice from my chief nurse or senior nurse for any problem I cannot solve alone.	1.71
10	I am embarrassed in an emergency during performing the nursing and do not know what to do.	1.68
26	I proudly talk to others about my work.	1.56
6	I feel my knowledge is less than sufficient during performing the nursing.	1.35
7	I feel my nursing skill is less than sufficient during performing the nursing.	1.31
8	I sometimes do not know treatment or examination methods during performing the nursing.	1.28
16	I work with the sense of responsibility for my behaviors.	1.27
25	I am proud of being a nurse as I believe the job is recognized as a profession by the hospital or society.	1.13
18	I accept constructive criticisms and try to improve myself.	1.09
32	Sometimes I feel I exhausted even my emotion after work.	-1.02
36	I have a hard time because of personal relationship with my boss or other superiors.	-1.09
38	It is hard for m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ings other than the nursing work.	-1.14
33	I sometimes see my relationship with the patient and his/her family in bad shape.	-1.19
37	I have a hard time because of the inappropriat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division I work at.	-1.23
42	I think the role of a nurse is too different from what I have thought about before to be a full profession.	-1.59
41	I think my role is too ambiguous to be a full profession.	-1.67
12	I regularly read nursing related technical journals.	-2.17

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나는 나의 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 ‘나는 간호직은 병원이나 사회에서 전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자랑스럽다.’, ‘나는 건설적인 비판을 수긍하며 개선하고자 한다.’ 등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부정적인 동의를 보인 진술문을 살펴보면 ‘나는 간호관련 전문지를 정규적으로 읽는다.’, ‘나는 나의 역할이 애매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에 갈등을 느낀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간호사의 역할이

현실과 달라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에 갈등을 느낀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간호사의 역할이 현실과 달라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에 갈등을 느낀다.’, ‘나는 근무하는 부서의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 때문에 힘들다.’, ‘나는 환자, 보호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가 있다.’, ‘나는 간호업무 외의 일에 책임을 져야 할 때 힘들다.’, ‘일을 한 후에는 나는 감정까지도 메마르게 될 때가 있다.’ 등으로 나타났다 [표 7].

〈Table 8〉 Representative items of Type 5

No.	Statement	Z-score
22	I always feel tired for the 3 shift system a day.	1.88
23	My excessive work schedule makes me tired.	1.63
3	I try to be interested in and understand my patients' personal aspects and help them.	1.47
8	I sometimes do not know treatment or examination methods during performing the nursing.	1.44
10	I am embarrassed in an emergency during performing the nursing and do not know what to do.	1.37
39	It is hard for me to perform a new work I do not know very well.	1.28
25	I am proud of being a nurse as I believe the job is recognized as a profession by the hospital or society.	1.22
6	I feel my knowledge is less than sufficient during performing the nursing.	1.13
38	It is hard for m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ings other than the nursing work.	1.01
41	I think my role is too ambiguous to be a full profession.	-1.09
21	I can sufficiently manage the workload assigned to me.	-1.14
40	I think my hours spent on documentary record for administrative transactions are moderate.	-1.21
33	I sometimes see my relationship with the patient and his/her family in bad shape.	-1.55
14	I have insufficient opportunities to learn more knowledge or nursing skills.	-1.58
11	I participate in various learning opportunities for my personal growth in the profession.	-1.67
31	I feel I have enough strength to enjoy my leisure time after work.	-1.67
12	I regularly read nursing related technical journals.	-1.83

제4유형을 대표하는 10번 대상자(인자가중치 1.5220)는 22세 여자로 종교는 천주교이며, 중환자계에 4개월 근무하였으며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봉사에 의미를 두고 선택하였다.

대상자의 진술문에 의하면 “전혀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면, 설명을 들어도 스스로 이해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막막하고 답답한 기분이 든다.” 그리고 “항상 간호를 하면서도 이 행위를 했을 때 일어날 상황이나 예측되는 미래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다. 지식이 있는 것도 조각조각의 단편적이며 서로 연결되지 않고 지식이 유기적이지 않아서 스스로 느끼면서 지식부족을 느낀다.”고 진술하였다.

26번 대상자(인자가중치 1.3660)는 26세 여자로 종교는 무교, 병동계 4개월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적성과 흥미를 가지고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진술문에 의하면 “전에 실습하면서 봤던 간호사의 모습보다 더 전문적인 간호사의 역할에 매력을 느끼며, 의사가 낸 오더를 넘죽 받는게 아니라 잘못된 처방을 거르고 조언까지 하는 모습에 갈등을 느끼기 보단 내 능력을 더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4유형의 대상자는 종합병원 경력기간이 6.6개월로 5개 유형 중에서 경력이 가장 적었다. 또한 간호학과 입학동기가 가족과 친지의 권유, 그리고 취업보장으로 선택하게 되었고(66.7%), 전체 대상자 중 가장 적은 22.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유형은 본인의 간호 행위에 대해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능력을 더 키우고 싶어하며, 그 지식 또한 단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4유형을 “지식, 기술부족형”으로 명명하였다.

3.2.5 제5유형 : 과도한 업무 부담형

제5유형은 총 9명(22.5%)으로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 순으로 살펴보면 ‘나는 1일 3부 교대근무로 항상 피로감을 느낀다.’, ‘나는 나의 무리한 근무 스케줄은 나를 지치게 만든다.’, ‘나는 환자의 개인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필요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나는 간호행위 시 치료나 검사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나는 간호행위 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스럽다.’, ‘나는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업무에 임하

게 될 때 힘들다.’, ‘나는 간호직은 병원이나 사회에서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자랑스럽다.’, ‘나는 간호행위 시 지식의 부족을 느낀다.’, ‘나는 간호업무 외의 일에 책임을 져야 할 때 힘들다.’ 등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부정적인 동의를 보인 진술문을 살펴보면 ‘나는 간호 관련 전문지를 정규적으로 읽는다.’, ‘나는 일한 후에도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이 남아 있음을 느낀다.’, ‘나는 개인적 전문적 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의 학습기회에 참여한다.’, ‘나는 근무하면서 부족한 지식이나 간호기술을 배울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 ‘나는 환자, 보호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가 있다.’, ‘나는 행정적 사무 처리를 위한 문서기록을 소비하는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할당된 작업량은 충분히 견딜만한 양이다.’, ‘나는 나의 역할이 애매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에 갈등을 느낀다.’ 등으로 나타났다[표 8].

제5유형을 대표하는 19번 대상자(인자가중치 1.2839)는 23세 여자로 종교는 기독교이며, 병동계에 4개월 근무하였으며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였다.

대상자의 진술문에 의하면 “간호뿐만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한다.”고 진술하여 간호업무에 이론과 실무를 적용하여 간호할 뿐 만 아니라, 환자의 입장도 고려하여 간호하니 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3번 대상자(인자가중치 1.3719)는 23세 여자로 종교는 천주교, 병동계 10개월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취업보장으로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진술문에 의하면 “새로운 업무가 경험이 없어 부담스러우며, acting 할 것도 너무 많고 차팅도 해야 해서 인계준비를 할 시간이 너무 적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5유형의 대상자는 종합병원 경력기간이 7.8개월이며, 간호학과 입학동기가 가족과 친지의 권유(44.5%)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간호행위 시 간호뿐만 아니라, 차팅, 인계준비, 환자 입장 고려 등 간호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 과도하게 많다고 생각하고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5유형을 “과도한 업무 부담형”으로 명명하였다.

4. 고찰

의료가 발전함에 따라 간호 분야 역시 복잡해져 간호사로 하여금 정확한 지식과 기술, 바르고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이 요구되어지고 있다[7].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1년 이내의 신규간호사가 갖추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규간호사의 실무적응 유형을 파악하여 신규간호사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신규간호사들의 실무적응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연구 대상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제1유형은 “새로운 업무 부담형”으로(37.5%) 새로운 업무에 하게 될 때 힘들어 하며, 간호행위 시 간호기술의 부족을 느끼며 검사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간호사 업무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업무량 과중과 전문지식 및 기술의 부족이 높은 순위에 있는 것과 일치하고 있으며[8],[9],[10], 문미숙[11]의 간호학생들의 첫 임상실습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기술습득의 기회가 부족하고 제한된 지식만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경험을 지지하는 것이므로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해 재고의 필요성을 더해 줌과 동시에 간호학과를 졸업한 신규간호사에게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 선행연구는 본 연구의 제4유형인 ‘지식, 기술부족형’과 제5유형인 ‘과도한 업무 부담형’과 같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박은정의 연구의 결과에서 간호사들은 실무에 완전히 적응하기도 전에 새로운 응급상황 또는 신속히 기계적 조작이 필요한 돌발적 상황을 빈번히 경험하면서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간호사로서 무능력함을 느끼는 것으로[12]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제2유형은 ‘흥미, 책임감형’으로 새로운 치료와 간호방법에 흥미를 갖고 있으며, 간호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유형으로, 김정선 외[13] 연구에서 보여진 대상자들이 실습을 하면서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을 좀 더 확실히 알게 됨을 느끼고 실습기간이 경과할수록 다양하고 생생한 지식이 축적되어 가고 있음을 느껴 흥미를 갖게 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제2유형은 5가지 유형중 근무경력이 11개월로 가장 길며, 경력이 많아질수록 일에 대한 부담이나 걱정

보다는 흥미와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서금숙의 연구에서 간호사가 더 나은 간호사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일에 흥미를 가지고 실무에 적응하는데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14], 제2유형은 본 연구의 대상자 중 가장 긴 근무경력기간을 가지고 있어 경력이 길어질수록 신규간호사도 간호업무에 적응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은 실무경험을 통해 간호업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느끼고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제3유형인 ‘상황 개선형’은 간호 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건설적인 비판을 수렴하며 개선하고 환자에게 시행된 간호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박정혜와 전인숙[14]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신규간호사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감에 따라 자신들의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독립적인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적응하는 결과와 유사함을 보였다. 이는 신규간호사의 성취에 대한 보상과 동기부여 등 구체적인 교육전략을 개발하여 신규간호사들이 실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제5유형인 ‘과도한 업무부담형’ 간호행위 시 간호업무뿐만 아니라 차팅, 인계준비, 환자 대응 등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박정혜와 전인숙[15]의 현상학적 연구결과에서 나타 범주 2 ‘능력보다 버거운 업무와 3교대의 불규칙한 근무를 처음 경험하면서 심각한 피로를 느끼게 됨’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신규간호사의 과도한 업무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규간호사들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심각한 피로가 누적되어 소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의요기관에서는 신규간호사들의 업무량을 그 적응도와 기간에 따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신규간호사들의 유형에 따라 그들의 빠른 실무적응을 돕기 위하여 일률적인 교육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신규간호사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간호사들이 병원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병원 중심의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신규간호사들의 실무적용 경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개별화되고 단계별 교육 방법을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종합병원 조직 환경 속에서 신규간호사들의 실무적용 유형별 특성과 유형별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종합병원 신규간호사의 실무적용 유형은 5가지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결과 나타난 5가지 유형은

1. 제1유형인 “새로운 업무 부담형”은 총 15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37.5%) 나타냈으며, 제1유형 대상자의 40%는 가족과 친지의 권유로 간호학과에 입학하였으며, 근무경력은 평균 6.6개월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업무에 임하게 될 때 힘들며 간호행위 시 간호기술의 부족을 느끼며, 검사방법을 모르고 간호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2유형인 “흥미, 책임감형”은 총 2명으로 간호학과 입학이유는 적성과 흥미(50%), 취업보장(50%) 때문에 선택하였으며, 근무경력은 평균 11개월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새로운 치료와 간호방법에 흥미를 갖고 있으며, 간호 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제3유형인 “상황 개선형”은 총 5명으로 가족과 친지의 권유(40%), 취업보장(40%)으로 간호학과를 선택하였으며, 근무경력은 8.8개월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간호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건설적인 비판을 수렴하며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환자에게 시행된 간호활동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제4유형은 “지식, 기술 부족형”은 총 9명으로 전체 유형에서 제5유형과 함께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제4유형은 가족과 친지의 권유(30%), 취업보장(30%)으로 간호학과를 선택하였으며, 근무경력은 평균 6.7개월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간호행위 시 지식, 간호기술의 부족을 느끼며, 간호행위 시 치료나 검사방법을 모르는 경우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제5유형은 “과도한 업무 부담형”은 총 9명으로 제4유형과 함께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이며, 간호학과 선택한 이유는 가족과 친지의 권유(45%)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교대근무로 항상 피로감을 느끼며 무리한 근무 스케줄이 지치게 만들어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CKNOWLEDGMENTS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Pai Chai University Grant of 2012.

REFERENCES

- [1] M. S. Chu, The Lived experience of newly employed nurses: A Phenomenology study,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Vol. 12, No. 2, pp.17-25, 2000.
- [2] Benner, P., From novice to expert. Addison Wesley, California, pp. 13-36, 1984.
- [3] Pfaff, J., Factor related to job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of registered nurse inn long-term care facilities, Nursing Management, 18(8), pp.51-55. 1987.
- [4] S. Y. Hwang, E. J. Lee, D. M. Na, G. S. Lee, F. S. Sun, & D. S. Lee, The clinical experiences of newly qualified nurses, Journal of Korea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8, No. 2, pp. 261-271, 2000.
- [5] D. Y. Kang, Y. H. Kim, J. H. Kim, H. J. Oh, J. H. Yun, Stressor of newly employed nurses,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Vol. 29, No. 1, pp. 45-62, 1996.
- [6] H. K. Kim, Q-Methodology, Communicationbooks: Seoul, 2008.
- [7] H. M. Son, M. H. Koh, C. M. Kim, & J. H. Moon, The clinical experiences of adaptation as a new nursing staff. Journal of Korea Academy of Nursing, Vol. 31, No. 6, pp. 988-997, 2001.

- [8] D. P. Kim, M. J. Kim, The change of characteristics in clinical decision making in novice critical care nurses, The J Korean Nurs Adm Acad Society, Vol. 7, No. 2, pp. 301-314, 2001.
- [9] J. Y. Bai, M. J. Suh, A study on work stress perceived by clinical nurses, The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 Acad Society, Vol. 19, No. 3, pp. 259-272, 1989.
- [10] S. S. Hwang,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ve social support and stress type, level of clinical nurse, The J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Acad Society, Vol. 4, No. 2, pp. 119-131, 1995.
- [11] M. S. Moon, Nursing students' initial clinical experience, The J Korean Acad Society of Nurs Educ, Vol. 4, No. 1, pp. 15-27, 1998.
- [12] E. J. Park, Y. H. Kim, A Grounded Theory-Based Approach to Practice Adaptation Process of Hemodialysis Unit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9, No. 1, pp. 128-137, 2013.
- [13] J. S. Kim, J. J. Sun, H. S. Kim,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Qualitative Research, Vol. 10, No. 1, pp. 63-76, 2009.
- [14] K. S. Seo, Clinical Work Experience of Korean Nurses in U. S. hospitals, Ewha University, PhD. Seoul, 2013
- [15] J. H. Park, I. S. Chun, The lived experience of newly employed nurses: Phenomenological study, Vol. 9, No. 2, pp. 99-110, 2008.

김 윤 정(Kim, Yun Jeong)



- 2007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1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2월 ~ 현재 : 배재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응급간호, 기본간호

• E-Mail : yunkim@pcu.ac.kr